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13 주일

성 야고보

페르시아인 대순교자

(제7조 • 조과 부활 복음 2)

*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제7조 부활 찬양송 82

순교자 찬양송 84

성당 찬양송

성탄 대림절 시기송 208

사도경 : 에페소 2,14~22 318

봉독서

복음경 : 루가 18,18~27 131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참 사랑이신 하느님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주의해라.”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거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민족일지라도 손수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세상에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사람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고린토 후 6,16)라고 성 사도 바울로는 고린토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해 없이 잘 이해되도록, 사도는 그들에게 쓴 이전 편지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토 전 6,19)

이를 통해 사도 바울로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처하시는 곳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건축가는 성당을 지을 때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신자들은 성당을 꾸밀 때 가능한 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느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특별하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작품입니다.

무엇부터 먼저 감탄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체와 각 부분들이 얼마나 놀랍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먼저 감탄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 먼저 감탄할까요? 수세기 동안 인간의 몸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들은 때때로 인간에 대해 또 인간의 신체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시편기자는 하느님의

성전인 사람에 대해 이미 수세기 전에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사람을 천사들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시편 8,5 참조)

그러나 인간의 놀라움은 신체적 능력과 그 훌륭하고 놀라운 기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또한 ‘지성과 주체성’이라는 영적 선물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이성’과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창세기 1,26) 창조하심으로써 그에게 신화의 가능성을 주십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되지 않은 활동(에네르기아)’에 참여함으로써, ‘은총에 의해’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이 불 속에서 타고 빛나듯이 하느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발산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성전인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욕에 굴복하면 하느님의 성전에서 우상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는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마십시오.”(고린토 후 6,17 참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복해서 주어지는 세례, 즉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성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 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성탄절 금식...

세상으로부터 배고픈 시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40일 동안의 기대와 기다림.

마치 아버지가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듣기 위해 분만실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40일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 저 높은 곳에서 이곳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탄절...

종교는 폐지되고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날.

금식...

이것은 우리가 강요에 의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느님이 만드신 우리 신체의 부분들이 안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 유한한 우리의 실존이 교회의 신랑이신 분, 즉 그리스도께 내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대림) 날들...

고백성사 때 영적 아버지가 우리 머리 위에 영대(領帶)를 드리우고

우리의 마음은 구유가 됨으로써

하느님이신 아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태어나시게 되는 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훌륭한 영적 투쟁을 합시다.

성탄절 전에 있는 40일의 대림 기간 동안 좋은 속죄(贖罪 : 죄를 씻는 것)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변모될 것입니다.





양구 성 안드레아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11월 30일 축일을 맞이하는 양구 성당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영적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1월 30일(수)
성 안드레아 첫 사도
- * 12월 2일(금)
성 보르피리오스 수도사제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 예배는 12월 2일(금) 밤 9시
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됩니다.

차량 이동 및 숙소 관련 문의
는 서울 성당 사무실로 하시면 됩
니다.

소 식

■ 서울 성당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 일정 안내

- 12월 4일(주일) :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 증정
오찬 후, 성당 대청소 및 성탄 장식 (모두 참여)
- 12월 5일(월) 오후 5시 30분부터 :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성상 행렬, 성찬예배, 만찬
- 12월 6일(화) 오전 9시부터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오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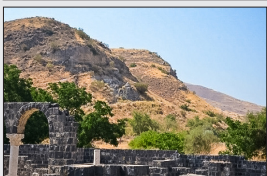
NCCK의 제71회 정기 총회가 지난 21일 한신대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대교구에서는 대표로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20일, 전주 성모 안식 성당의 일리아스 임재봉 교우가 안
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고인의 영혼에 평온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하며,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마귀와 돼지때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표지 사진 설명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래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
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물에 오르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
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
히지 마십시오"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
령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나 들어 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 갔다. 그러자 돼지때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루가 8,26~29; 32~33)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곳으로 알려진 게르게사('가다라'-마태오 8,28; '게라
사'-마르코 5,1라고도 한다) 지방은 갈릴래아 호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1970년 이 지역에서 도로 건
설하던 중 고대 유적을 발굴하게 되었고,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과 성당이 있었던 성지임이 밝혀졌다.(사진)
수도원과 성당은 이곳이 기적의 장소라는 근거에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뒤쪽에 보이는 산비탈
은 예수님께서 내쫓은 마귀가 돼지 때에 들어가 비탈을 내달려 호수에 빠져 죽은 상황에 잘 부합한다.

발굴을 통해서 이곳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터를 잡고 살았음이 확인되
었다. 복음 내용처럼 무덤이 준비한 곳이었고,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한 돼지를 사육할 수 있었던 환
경은 이방인의 구역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관계 당국은 이 지역을 발굴 복원하여 1982년부
터 성지 순례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